

公園造成에 있어서의 施設에 關한 小考論

— 応用美術의 面에서 —

故 崔永基 (応用美術家・本協會會員)

序 論

첫째 公園造成의 目的은 두말할 것도 없이 人間의 體質을 合理的으로 醇化, 向上시키고 自質의 感受가 自然現象에서 우러나는 快感을 追求하는데 있다. 이는 마침내 人間公園이라는 이름으로 大衆이 그리워하며 情緒的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 公園이다.

그 뜻은 더욱 우리들에게 認識을 주었고 없어서는 안되는 不可分의 位置에서 上位를 차지할 수 있는 多目的 道場으로 까지 登場시킨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意味에 있어서의 公園은 管理制度面에서 더욱 具體적으로 現實化할 수 있는 劃期的 契機가 造成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制度定着을 期하고 政府施策을 뒷받침하고자, 우리 協會가 積極의 態度로 임하여 調査分析으로 研究發表를 할 수 있는 機會를 付與한데 對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여기며 더욱 뜻있고, 알찬 人間公園造成에 尨대한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綜合施設의 考察

여기에서 말하는 公園의 名目으로 볼 때, 산과 들, 바다와 강을 對象으로 하는 自然景觀의 優秀性을 選擇할 수 있는 반면, 부수되는 條件을 解決할 수 있는 問題들이 綜合施設의 考察이라 하겠다.

山岳公園, 野山公園, 海岸・海上・海中公園들의 開發이 可能한 限, 綜合的인 面에서 考察하여 多目的으로 研究하면서 山과 山을 막아서 湖水를 만들어 貯水된 물로 農水利 또는 電採利等多目的이면서 景勝을 이루는 環境公園化를 企圖計劃하려는 方向은 더욱 有利하고 價值있는 公園의 綜合施設의 考察이 된다.

또한 海岸周邊에 있는 山岳을 連結하는 景勝地로 만드는 綜合開發은 더욱 理想的인 着眼이다.

이러한 尨대한 綜合開發案은 또한 尨대한 財政投資가 뒤따르지만 이런 問題들의 解決은 나아

가서 世界的인 公園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를 가져옴으로 해서 世界的 觀光客을 誘致할 수 있는 手段方法을 圖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發展을 爲해서도 이러한 專門分野에 人材資源을 確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行政當局의 政策의 배려가 作用되어 專門化한 協會等 研究機關 育成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 하겠다.

특히 綜合公園施設에 있어서의 強調點은 景觀은 「美」를 追求하는 것인만큼, 그 審美感은 바로 우리의 精神的 「에네르기」를 가져다 주면서 健康으로 誘導하는 重要한 要素이므로 아름다운 環境造成은 바로 公園造成과 直結됨을 強調해둔다.

이러한 觀點에서 溪谷과 溪谷을 잇는 橋脚을 어떻게 하면 美的 見地에서 設計하느냐 하는 問題, 또는 山景致美속에 짓는 山壯의 外形美는 어떻게 設計하느냐, 또는 海岸에 짓는 바닷가別莊은 어떤 外形等, 또는 色塗美等까지 兼한 調和美를 생각해서 집을 짓느냐를 研究할 것이며, 西洋式이나, 東洋式이나의 建築構造問題와 室內裝飾의 格調를 專門知識에 依하여 꾸며져야 할 것이다.

室內의 「인테리어」가 韓國의 紋樣에 依한 「디자인」이 이루어지면서 現代的 感覺에 알맞는 設計가 重要하다.

여러가지 施設物들이 크고, 작고間에 美를 追求하면서 만들어져야 함은 勿論이며, 堅固한 實用的 價值와 經濟的 價值를 兼備하여 나아가면서 自然景觀과 呼吸할 수 있는 連関性을 가져야 한다.

問題는 綜合施設의 考察이 아름답다, 景致좋다, 집들을 멋있게 잘도 지었구나, 부수되는 施設이 잘해서 便利하구나, 等等이 人間으로 하여금 審美感을 줄 수 있는 것이 考察의 對象이 되는 것임으로 그에 對應하는 細心한 研究考察이 並行되어야 한다.

景勝地에 따르는 施設問題

景致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해도 交通便이

좋지 못하던가, 宿泊施設이 좋지 못할때는 画中之餅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따르는 施設이 없고 그 自然景觀의 아름다움은 그저 歷史와 더불어 靑風新雨, 이름모를 하나의 山, 하나의 숲,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는 이름으로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속에 昇華된 山川草木의 이름을 찾아서 아름답게 보아주고,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人間들의 情緒요, 探勝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길도 내고, 다리도 놓아야 하고, 배도 만들어 강과 바다에 띄워야겠다. 썩어서 못타게된 木船을 鉄船으로 만들어 安全한 觀光船으로 만들고, 狹小한 進入路는 넓혀 便利한 交通道路로 만드는 일들, 또는 探訪便益施設을 만드는 일들, 모두가 公園을 保護하고 참되게 利用하려는 重要한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施設問題를 技術的 또는 美術的으로 企劃하고 造成하는 問題가 어떻게 하면 自然景觀을 害치지 않고, 自然 그대로를 살리면서 부수시설을 결행해 나갈 것인가를 研究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觀光次 또는 休養次 찾아가는 山寺는 景觀이 좋은 곳에 있기 마련이고, 그곳에 가보면 山골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바위에 흠을 파서 흐르게 한 물을 또 대나무통을 반쪽으로 빼게서 그것을 흠통으로 하여 물이 흘러오면 또 그 물을 바위바닥 깊은 곳에 고이게 하여 그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自然 그대로의 施設의 한 部分에 지나지 않지만 그 環境에 알맞게 設備해 놓은 着案들은 더욱 自然美를 돋보이게한 例라 하겠다.

깊은 山속에서 나오는 골짜기를 막아서 「물」을 만드는 施設도 좋고 그 周辺에 나무토막을 넓게 쪼개서 토막의자를 만들어 놓는 것도 環境에 알맞은 좋은 설비가 된다.

작은 部分에 있어서의 公園內의 建物 변소의 外形의 美的 問題, 쓰레기통의 디자인 問題들을 等外할 수 없다.

造景에 있어서의 돌의 位置와 놓은 方法과 꽃과 나무들의 심어진 位置等은 가장 아름답게 심어지고 놓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公園이라는 代名詞를 包容하고, 公園의 評價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山岳公園은 山岳에 따르는 危險度를 막는 施設이 必要하고 便利한 施設이 아름답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危險度가 있는 곳에는 대담성을 나타낸 施設規模로 할 것이며, 大衆性을 면 野山公園에는 野山公園답게 꾸며질 것이며 紀念館, 紀念塔 또는 噴水台가 마련될 것이며, 歷史的 人物들의 초상, 조각상들이 세워질 것이며 動·植物園도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龐大한 施設物들은 地域特性을 살린 美的調和에 依한 体系的 樣式과 設計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公園施設과 國家施策의 方向과 要望事項

國立公園造成의 目的을 強調하면서 專門機關으로서의 研究活動이 國家에 奇與할 수 있는 役割을 더욱 돈독히 하고, 自發的으로 協議하면서 研究할 수 있는 뒷받침을 바라며 專門機關으로서 할 수 있는 範圍幅이 더욱 活潑한 軌道에서 發展할 것을 期待한다.

國立公園의 適地調査團派遣 또는 企劃이 國民의 要望과 더불어 國家施策과 合流하는 方向으로 一致되기를 追求한다.

結 論

國家가 만드는 大小公園이 科學的으로 造成된 것을 期待하면서, 公園을 지키는 「공원지기」 또는 山岳公園을 지키는 「산지기」라는 뜻이 아니고, 山을 觀察하고 研究하는 「산지기」를 두자는 것이다.

허술하고 무의미한 公園管理事務所나 깊은 山中에 두고 그들이 山이나 지키고, 문간지기나 하는 식이 아니고, 좀더 次元이 높은 뜻에서 公園造成에 心血을 기울일 수 있는 研究員을 그 자리에 常住케 하면서 朝夕으로 觀察하고 周辺環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合理的 方案도 바람직하다.

특히 應用美術家, 彫刻家, 建築美術家, 造景家의 分野別 人材의 投入없이는 所定된 國立公園의 世界的 面貌를 갖추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專門的 機關을 育成하여 公園施設을 科學的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要望한다.